2004년 민주화발전지원사업

2004년 여수 지역 청소년 민주주의 의식 설문조사 통계 보고서

주최 : 여 수 기 독 교 청 년 회(YMCA)

550-801) 전남 여수시 광무동 916-12 / ☏ 061-642-0001 / FAX 061-642-0010

w w w . y s y m c a . o r . k r

후원 : 민 주 화 운 동 기 념 사 업 회

100-785)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 ☏ 02-3709-7510 / FAX 02-3709-7510

www.kdemocracy.or.kr

2004년 여수지역 청소년 민주주의 의식 설문조사 통계 보고서

Ⅰ. 설문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04년 8월 10일(화) ~ 13일(금)

● 조사대상

여수지역 만 20세 이하 청소년 400여명

● 조사주최

여수YMCA 청소년 민주주의 의식 설문조사단

● 조사목적

여수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시민참여, 인권, 지방자치와 선거, 우리나라의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등을 구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민주주의 의식을 통계화하여 2004년 여수지역의 청소년전반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조사통계분석

여수YMCA 청소년인권센터

● 응답자

청소년 396명,

● 표본오차

± 3.62%

Ⅱ. 설문조사 통계 결과보고 요약

◎ 민주주의 관련 의식 정도

● 여수지역 청소년의 민주주의 인지도를 묻는 설문에 52.8%가 '비교적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알고 있지 않다'(6.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비교적 여수 지역의 청소년은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각계의 민주주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민주적이다"는 응답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3.8%, 국민이 19.9%, 학교가 6.3%, 정치인이 4.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정치인, 학교보다 우리나라와 국민의 민주주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각계의 민주주의 정도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참여 의식 정도

● 여수지역 청소년은 "여성의 사회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84%,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79.6%가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적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소년의 사회참여 내용 및 방법과 관련하여 '서명운동'(43.7%), '인터넷의 의견개진(32.1%), '이웃돕기 및 ARS 전화 프로그램'(24.7%)로 나타나, 여수지역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등을 통한 통신상의 참여보다는 '서명운동'을 통한 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 관련 현안의 의식 정도

● 여수지역 청소년들은 "원조교제로 발각된 사람들의 인적사항 언론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공개해야 한다'가 66.4%,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가 13.4%로 응답하여, "원조교제로 발각된 사람들에 대하여 언론에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청소년이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준 것"에 대한 설문에는, '잘못한 일이다'가 26.2%이고, '잘한 일이다'가 21.7%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지만, '잘못한 일이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묻는 설문에는,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가

45%,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가 13.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는 설문에 46.7%가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1.7%는 개선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여수지역 청소년들은 "감옥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 보호 정도"를 묻는 설문에는, 64.4%의 청소년이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인권 보호 정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방 자치, 선거,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의식 정도

● 35.6%의 청소년이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17%의 청소년만이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지역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지역 정치인의 인지"여부에 대해 19.2%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25.5%만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해, 여수 지역 청소년들은 낮은 정도의 지방자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정치적 관심도"에 대해 34.8%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선거연령이 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설문에는 71.2%의 청소년이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지방자치등 지역의 정치 관심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와 상이하게 선거 참여에 대한 욕구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와 관련한 의식 정도

● "통일의 실현시기"를 묻는 설문에는 27.5%의 청소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4.2%의 청소년이 '20년 이후'로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남북간의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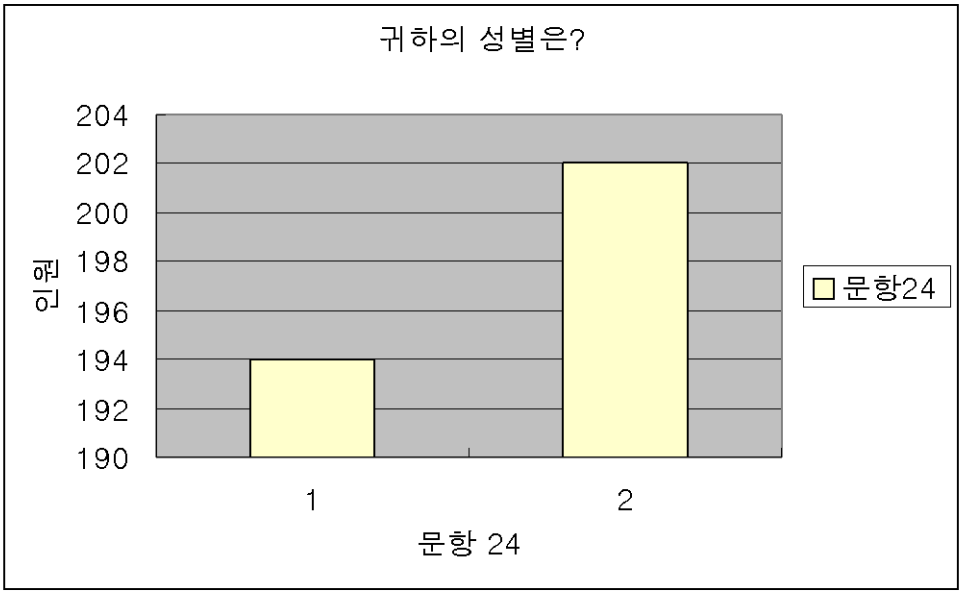
●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는 "많은 수의 인명을 희생시킨 명분없는 전쟁이다"는 청소년이 92.2%에 달해, 절대 다수의 청소년이 이라크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건"을 묻는 설문에, 46.2%의 청소년이 "5.18민중항쟁"으로 응답하여, 여수지역 청소년은 "5.18민중항쟁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설문 응답자의 분포

◎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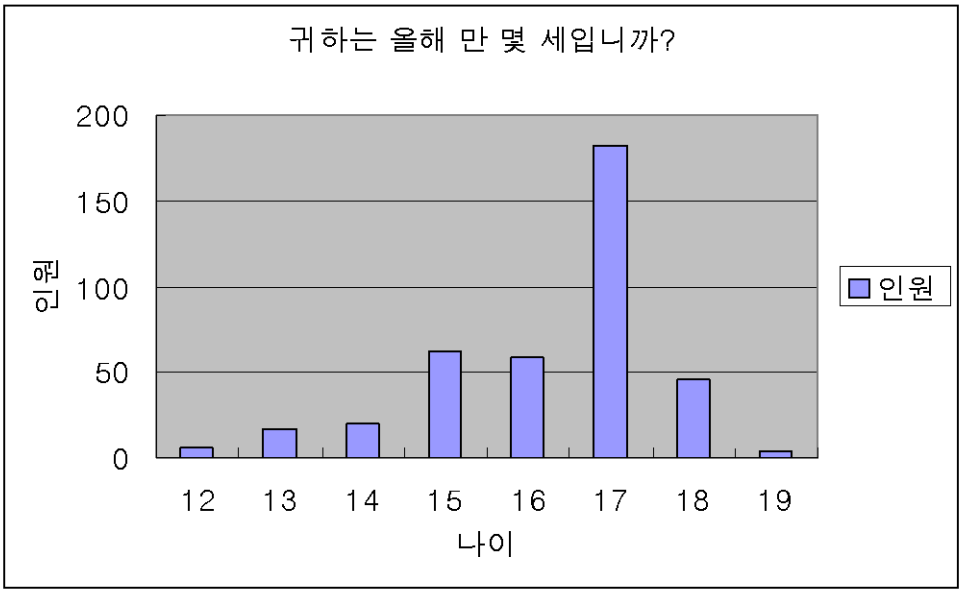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남자	194	49.0
② 여자	202	51.0
계	396	100.0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96명의 여수지역 청소년들이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194명으로 총응답자의 49%이고, 여학생이 202명으로 총응답자의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나이

항목 (나이)	빈도	퍼센트(%)
① 12	6	1.5
② 13	16	4.0
③ 14	20	5.1
④ 15	62	15.7
⑤ 16	59	14.9
⑥ 17	183	46.2
⑦ 18	46	11.6
⑧ 19	4	1.0
계	3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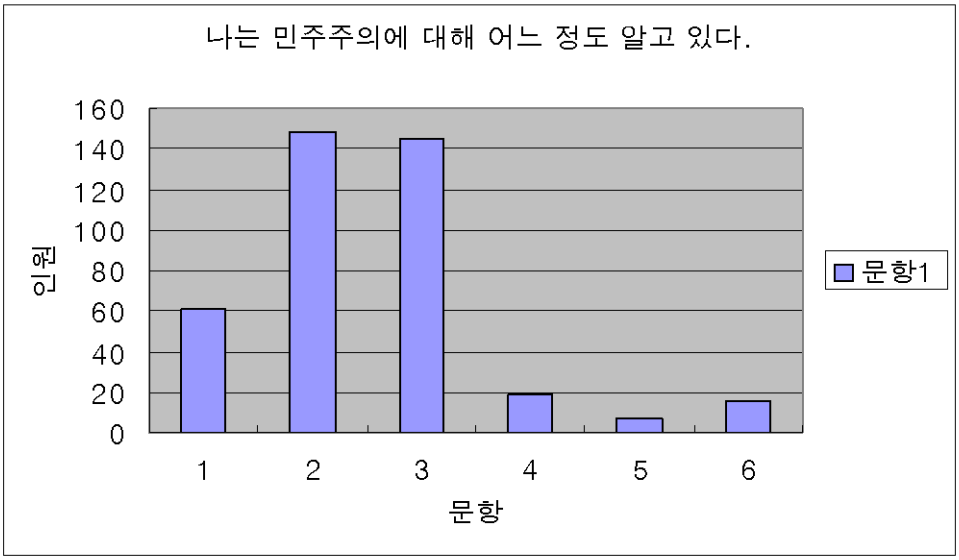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자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17세가 183명으로 총응답자의 46.2%로 가장 많았으며, 만15세가 62명으로 15.7%, 만16세가 59명으로 14.9%, 만18세가 46명으로 11.6%, 만14세가 20명으로 5.1%, 만13세가 16명으로 4%, 만12세가 6명으로 1.5%, 만19세가 4명으로 1% 순으로 나타난 중, 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Ⅳ. 설문조사 통계분석

문항 1) 나는 민주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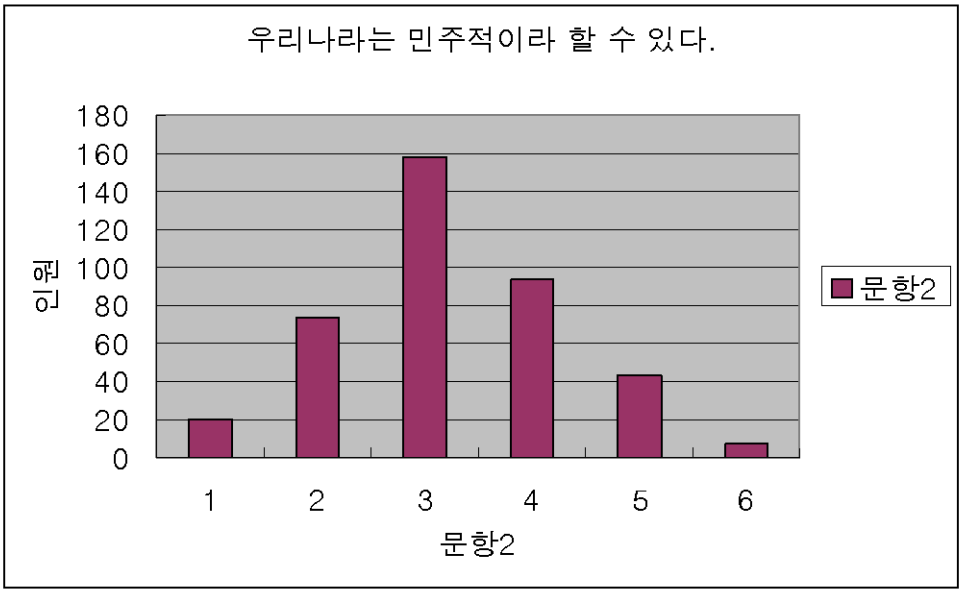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61	15.4
② 대체로 그렇다.	148	37.4
③ 보통이다.	145	36.6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9	4.8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1.8
⑥ 모르겠다.	16	4.0
계	396	100.0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설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52.8%로 나타나, '알고 있지 않다'의 6.6%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여수지역 청소년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항 2) 우리나라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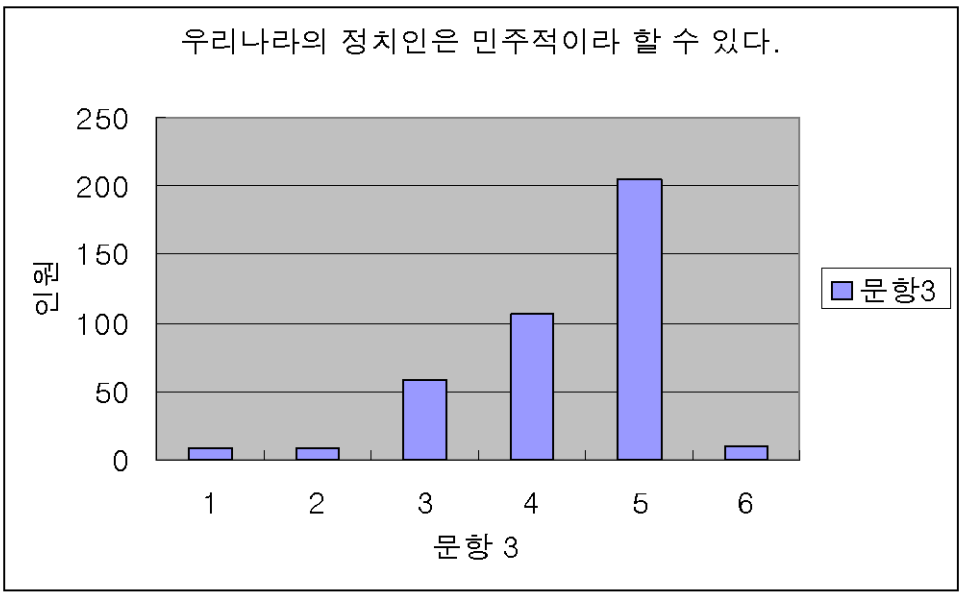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20	5.1
② 대체로 그렇다.	74	18.7
③ 보통이다.	158	39.9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94	23.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3	10.9
⑥ 모르겠다.	7	1.8
계	396	100.0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긍정적 응답인 '그렇다'가 23.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인 '그렇지 않다'의 34.6%에 못 미쳐, 청소년들의 우리나라를 아직 비민주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3)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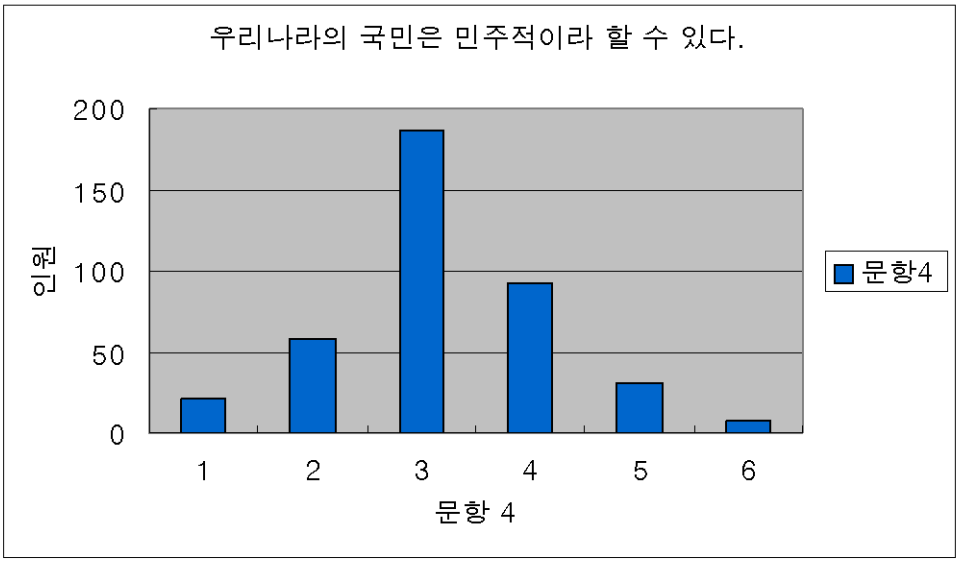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9	2.3
② 대체로 그렇다.	9	2.3
③ 보통이다.	58	14.6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6	26.8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04	51.5
⑥ 모르겠다.	10	2.5
계	396	100.0



"우리나라 정치인의 민주주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민주적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6%에 그쳐, '민주적이지 않다'는 응답율 78.3%와 상당한 격차를 보여 청소년들이 정치인들의 민주주의 정도를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4) 우리나라의 국민은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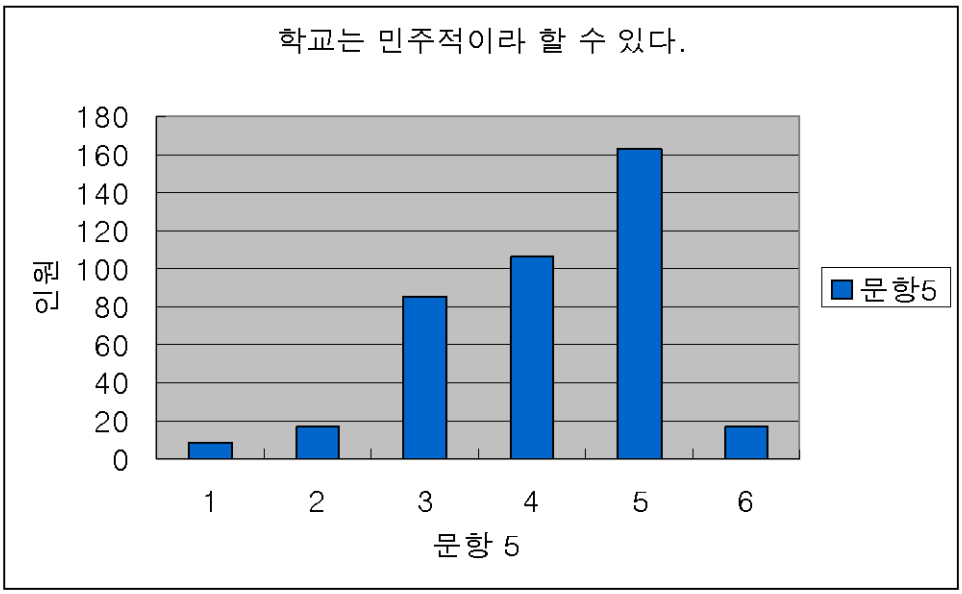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21	5.3
② 대체로 그렇다.	58	14.6
③ 보통이다.	187	47.2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	23.2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1	7.8
⑥ 모르겠다.	7	1.8
계	396	100.0



"우리나라의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가 19.9%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율 31%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민주주의 정도에 대해서도 청소년들은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5) 학교는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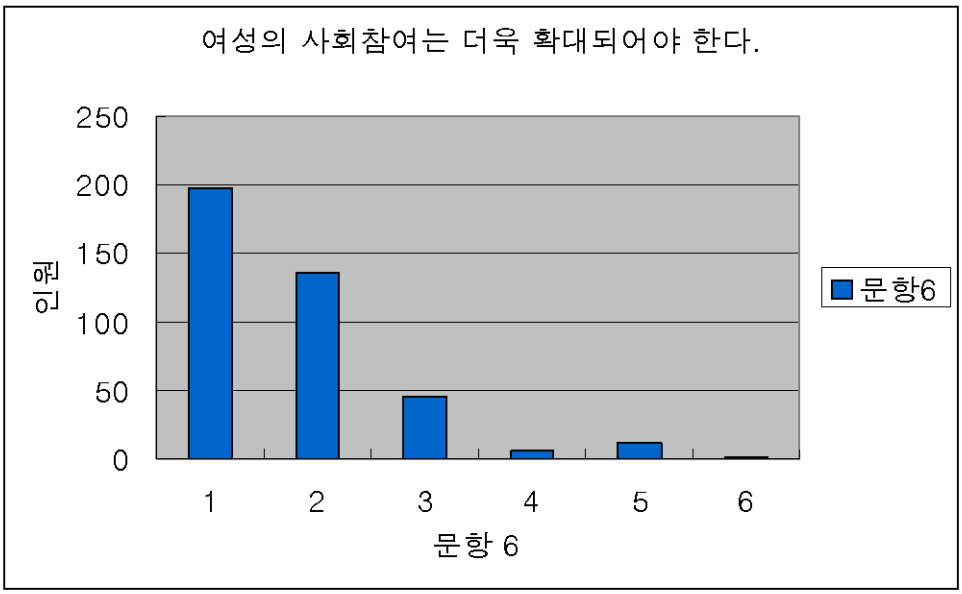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8	2.0
② 대체로 그렇다.	17	4.3
③ 보통이다.	85	21.5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6	26.8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3	41.2
⑥ 모르겠다.	17	4.3
계	396	100.0



"학교의 민주주의 정도"를 묻는 설문에 '그렇다'가 6.3%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의 68%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6) 여성의 사회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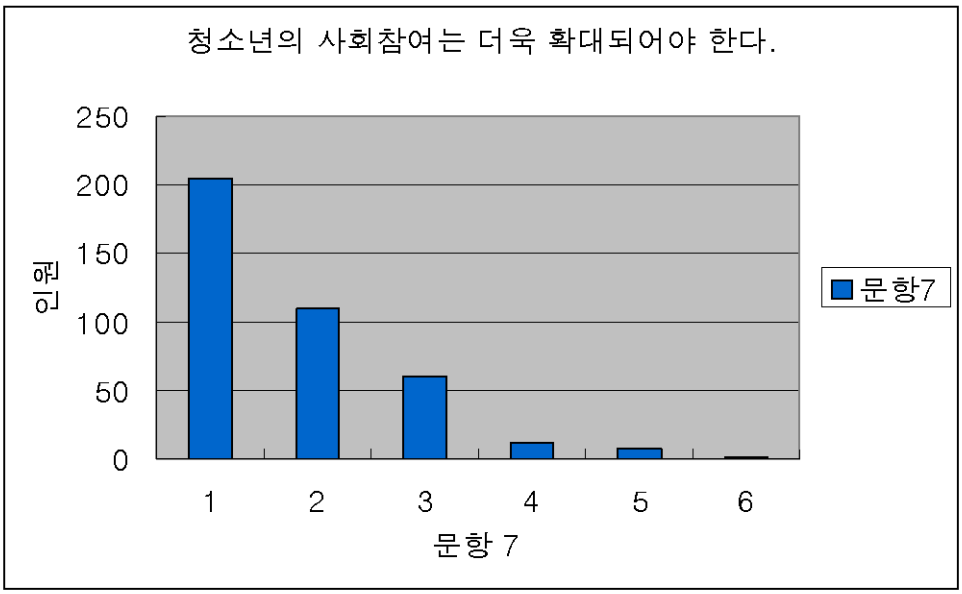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197	49.7
② 대체로 그렇다.	136	34.3
③ 보통이다.	45	11.4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6	1.5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1	2.8
⑥ 모르겠다.	1	0.3
계	396	100.0



"여성의 사회참여도"를 묻는 설문에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나타나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율 4.3%를 크게 앞질러 청소년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7)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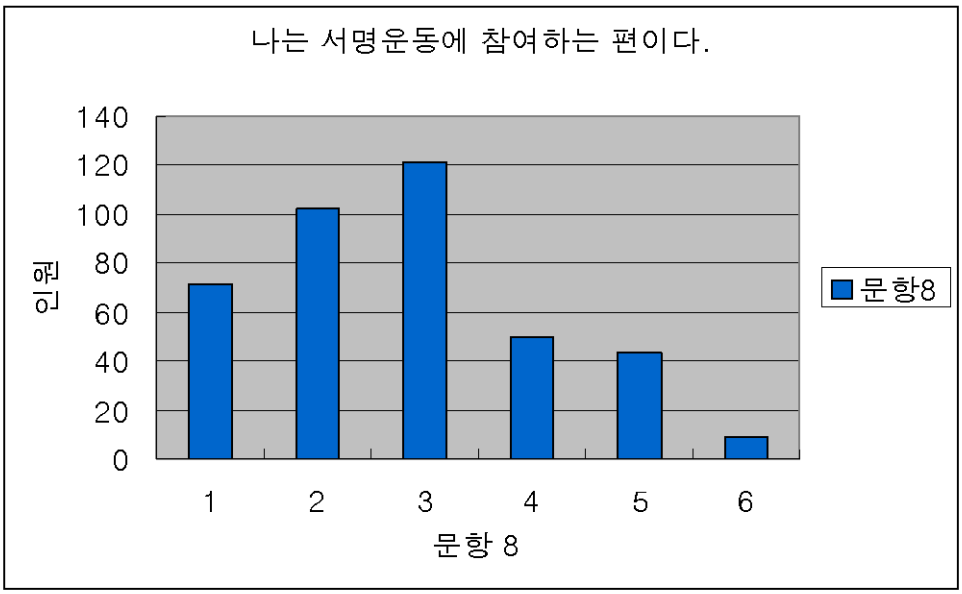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205	51.8
② 대체로 그렇다.	110	27.8
③ 보통이다.	60	15.2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	3.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2.0
⑥ 모르겠다.	1	0.3
계	396	100.0



"청소년의 사회참여도"를 묻는 설문에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9.6%로 나타나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의 5%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8) 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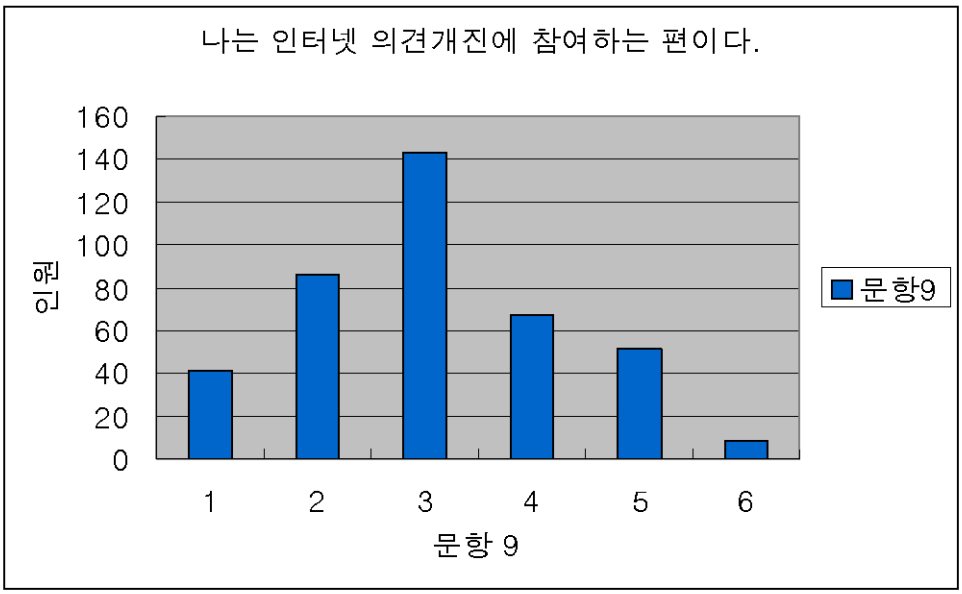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71	17.9
② 대체로 그렇다.	102	25.8
③ 보통이다.	121	30.6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50	12.6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3	10.9
⑥ 모르겠다.	9	2.3
계	396	100.0



"청소년들의 서명운동 참여율"을 묻는 설문에 '참여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3.7%이고,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3.5%로 나타나, 서명운동에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항 9) 나는 인터넷 의견개진에 참여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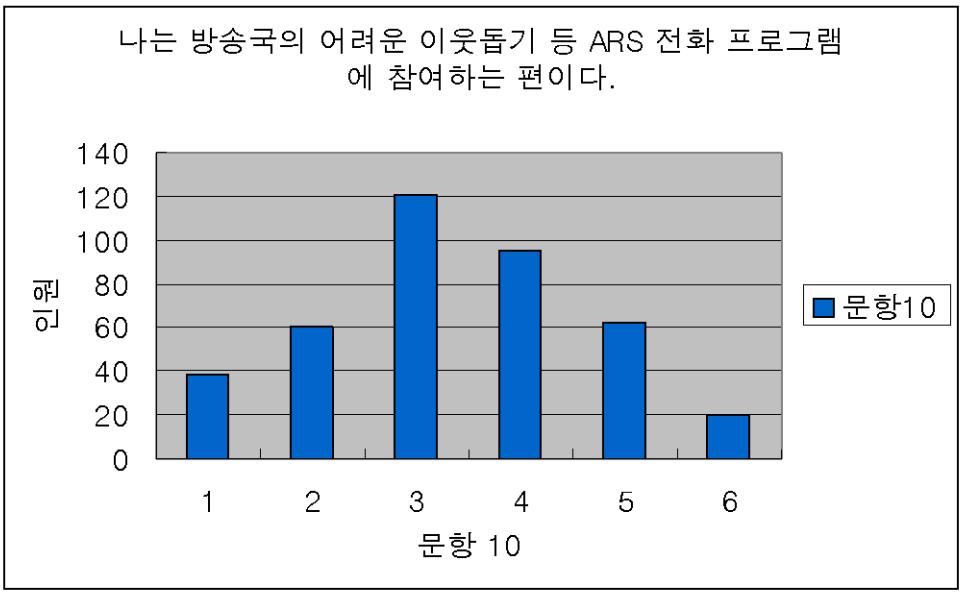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41	10.4
② 대체로 그렇다.	86	21.7
③ 보통이다.	143	36.1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67	16.9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1	12.9
⑥ 모르겠다.	8	2.0
계	396	100.0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견개진에 대한 참여도"를 묻는 설문에 '참여하는 편이다'가 32.1%로 조사되었으며,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가 29.8%로 조사되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의견개진'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10) 나는 방송국의 어려운 이웃돕기 등 ARS 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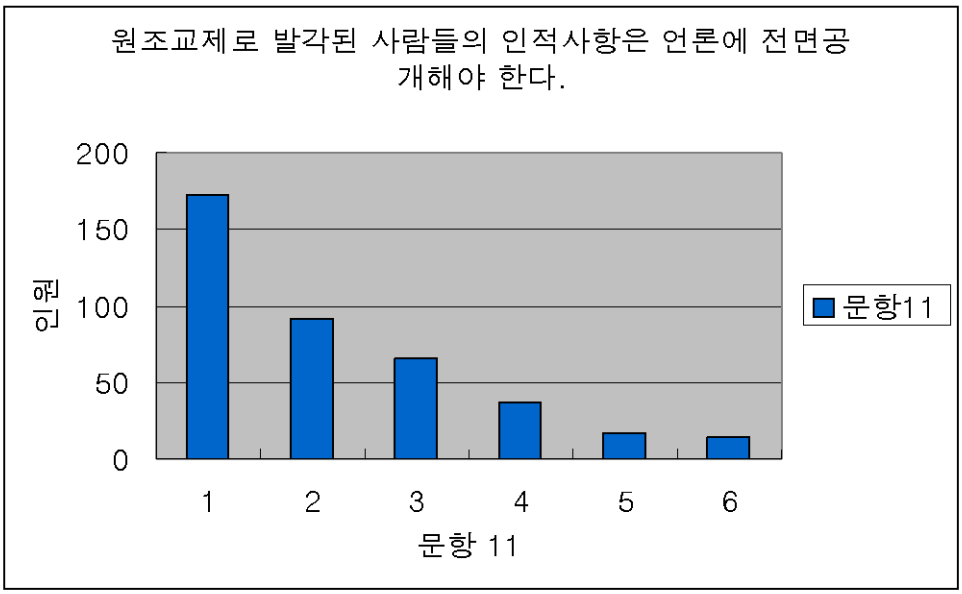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38	9.6
② 대체로 그렇다.	60	15.2
③ 보통이다.	121	30.6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95	24.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62	15.7
⑥ 모르겠다.	20	5.1
계	396	100.0



청소년들의 사회적 봉사 차원의 "이웃돕기 및 ARS 전화 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묻는 설문에 '참여하는 편이다'가 24.8%로 나타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의 39.7%로 나타나 방송국의 이웃돕기 활동에는 비교적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1) 원조교제로 발각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언론에 전면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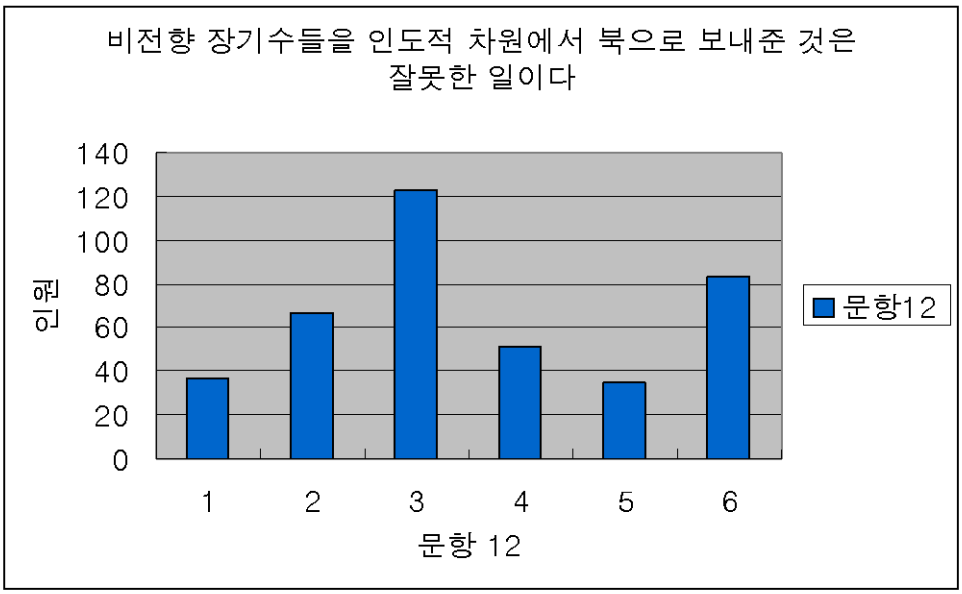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172	43.4
② 대체로 그렇다.	91	23.0
③ 보통이다.	66	16.7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36	9.1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4.3
⑥ 모르겠다.	14	3.5
계	396	100.0



"원조교제로 발각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언론에 전면공개해야 한다"는 설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6.4%로 나타났으며,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3.4%로 나타나, 응답한 청소년의 과반수가 '원조교제로 발각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언론에 전면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2)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준 것은 잘못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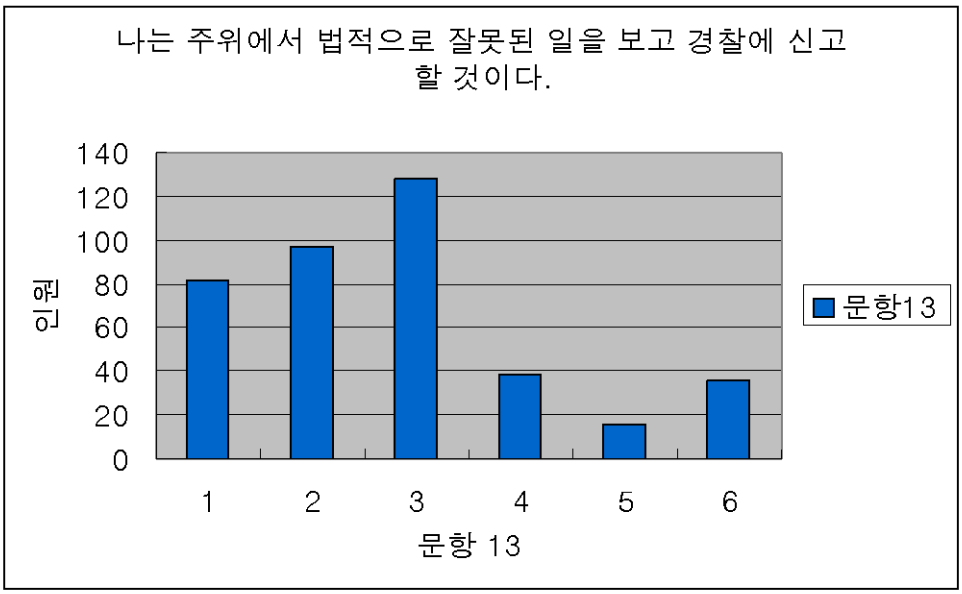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37	9.3
② 대체로 그렇다.	67	16.9
③ 보통이다.	123	31.1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51	12.9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5	8.8
⑥ 모르겠다.	83	21.0
계	396	100.0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준 것"에 대한 설문에 대해 '잘못한 일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6.2%로 나타나, '잘한 일이다'고 응답한 청소년 21.7%를 약간 상회하여, 청소년들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준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3) 나는 주위에서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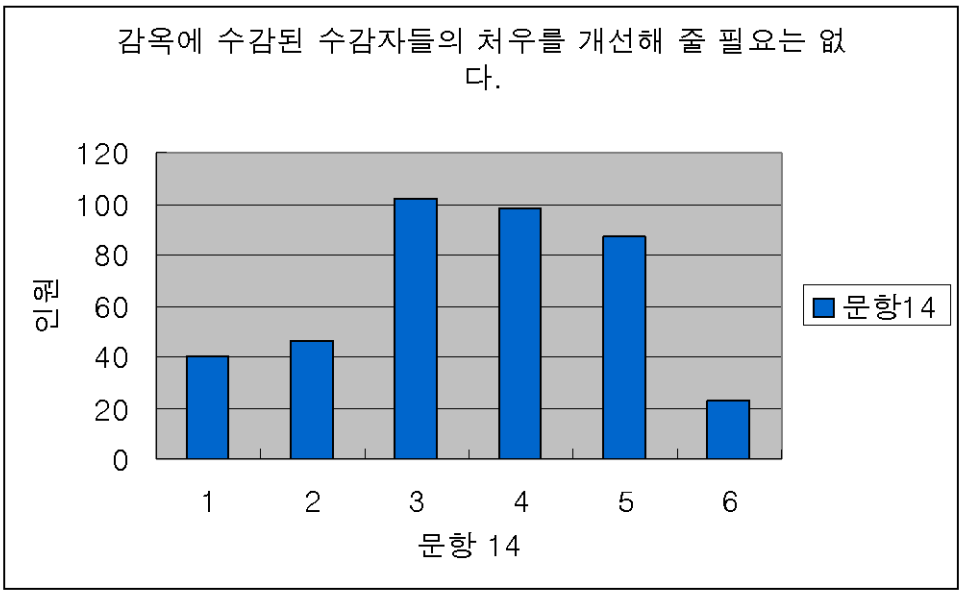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81	20.5
② 대체로 그렇다.	97	24.5
③ 보통이다.	128	32.3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38	9.6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6	4.0
⑥ 모르겠다.	36	9.1
계	396	100.0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및 신고정신을 묻는 설문인, "법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한 경찰 신고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 할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5%로 나타났으며, '신고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3.6%로 나타나 비교적 신고 정신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문항 14)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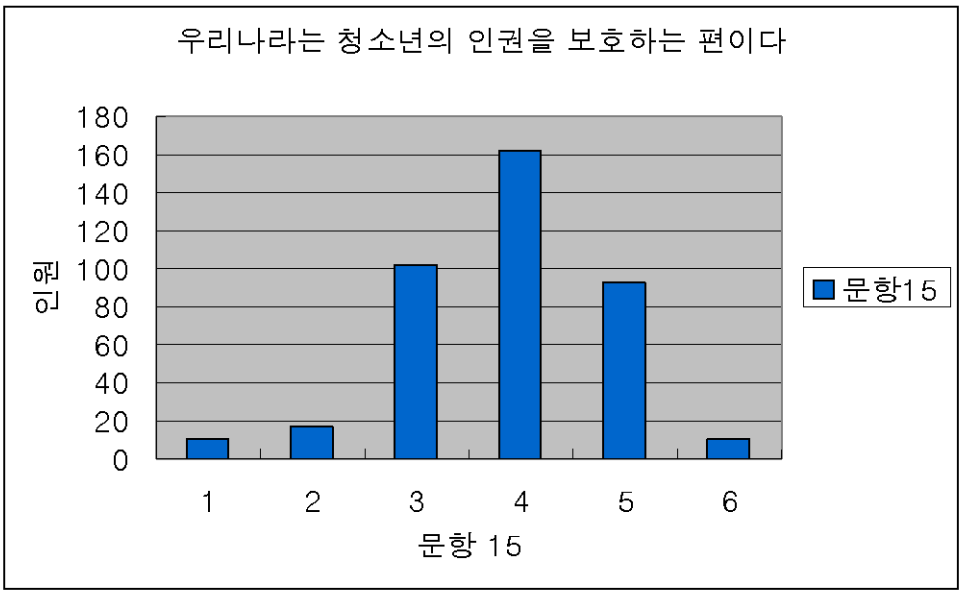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40	10.1
② 대체로 그렇다.	46	11.6
③ 보통이다.	102	25.8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98	24.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7	22.0
⑥ 모르겠다.	23	5.8
계	396	100.0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를 묻는 질문에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났으며, '처우를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6.7%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5)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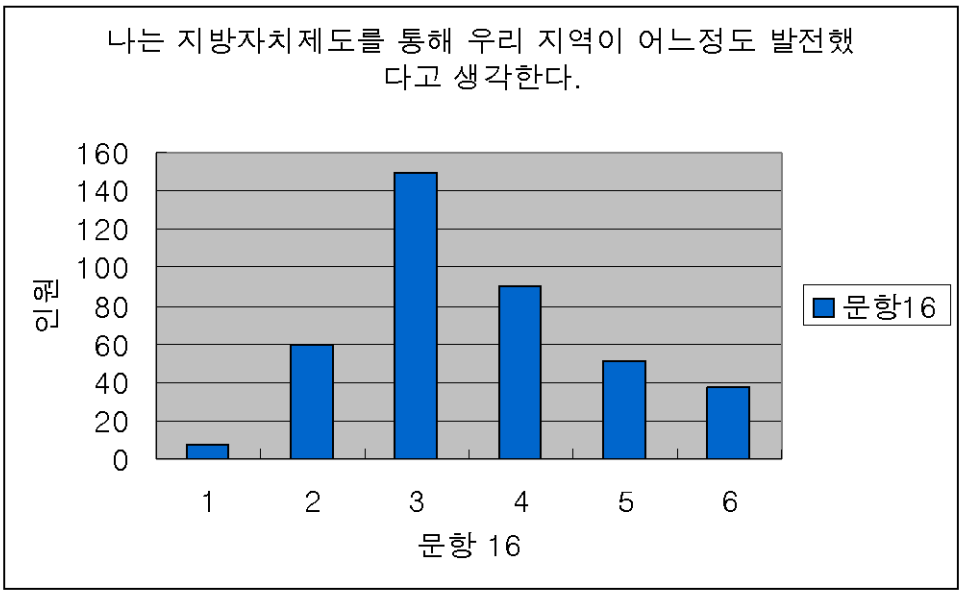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11	2.8
② 대체로 그렇다.	17	4.3
③ 보통이다.	102	25.8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2	40.9
⑤ 전혀 그렇지 않다.	93	23.5
⑥ 모르겠다.	11	2.8
계	396	100.0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권 보호 정도"를 묻는 설문에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7.1%에 그쳤으며,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4.4%에 달해 '우리 나라의 청소년 인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낮다'고 청소년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6) 나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우리 지역이 어느정도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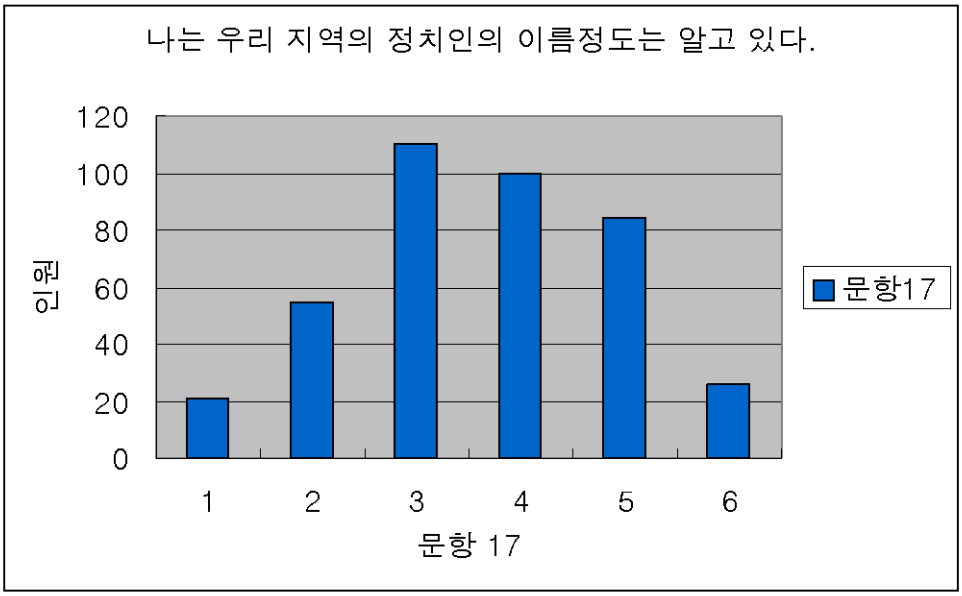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7	1.8
② 대체로 그렇다.	60	15.2
③ 보통이다.	150	37.9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90	22.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1	12.9
⑥ 모르겠다.	38	9.6
계	396	100.0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제도로 인한 지역의 발전 정도"에 대해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7%이고, '지방자치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5.6%로 나타나,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 발전여부에 대해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7) 나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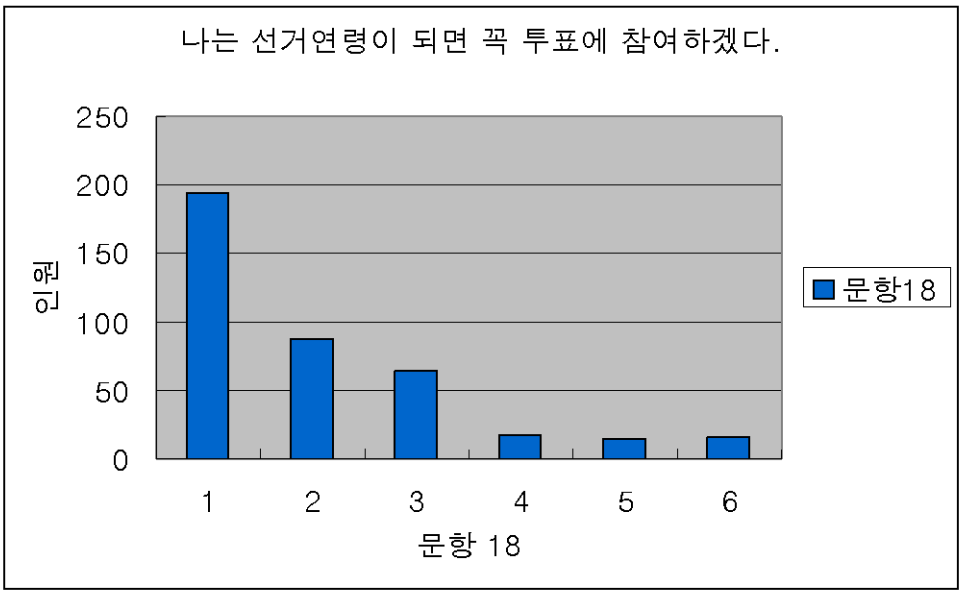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21	5.3
② 대체로 그렇다.	55	13.9
③ 보통이다.	110	27.8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0	25.3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4	21.2
⑥ 모르겠다.	26	6.6
계	396	100.0



"지역 정치인의 이름등을 아는 인지도"를 묻는 설문에 청소년들은 '알고 있다'가 19.2%이고, '모르고 있다'가 46.5%로 나타나, 여수지역 청소년들의 지역 정치인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8) 나는 선거연령이 되면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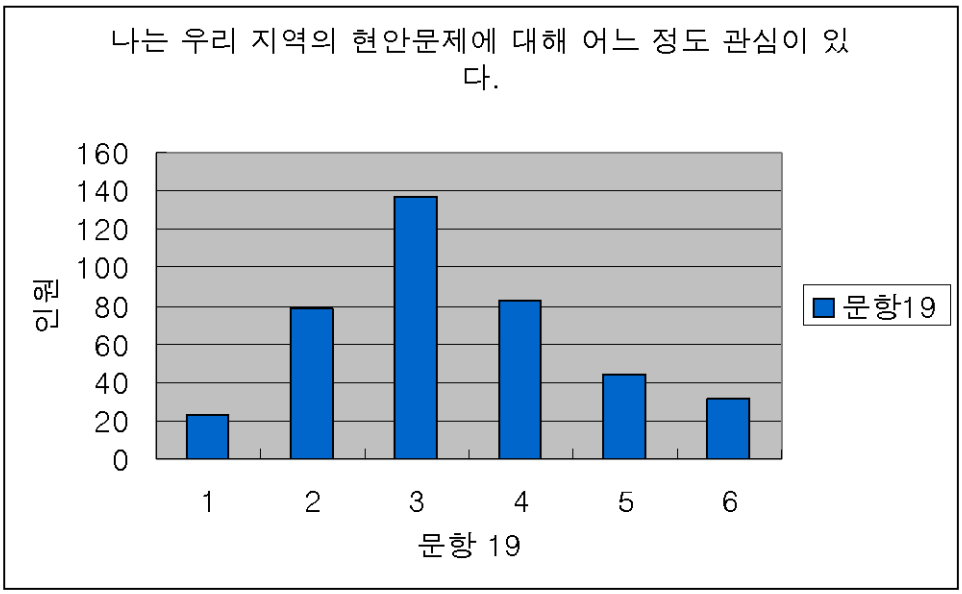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194	49.0
② 대체로 그렇다.	88	22.2
③ 보통이다.	65	16.4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18	4.5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5	3.8
⑥ 모르겠다.	16	4.0
계	396	100.0



“선거 연령이 되었을때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청소년이 71.2%로 나타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청소년 8.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의 청소년이 선거권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문항 19) 나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관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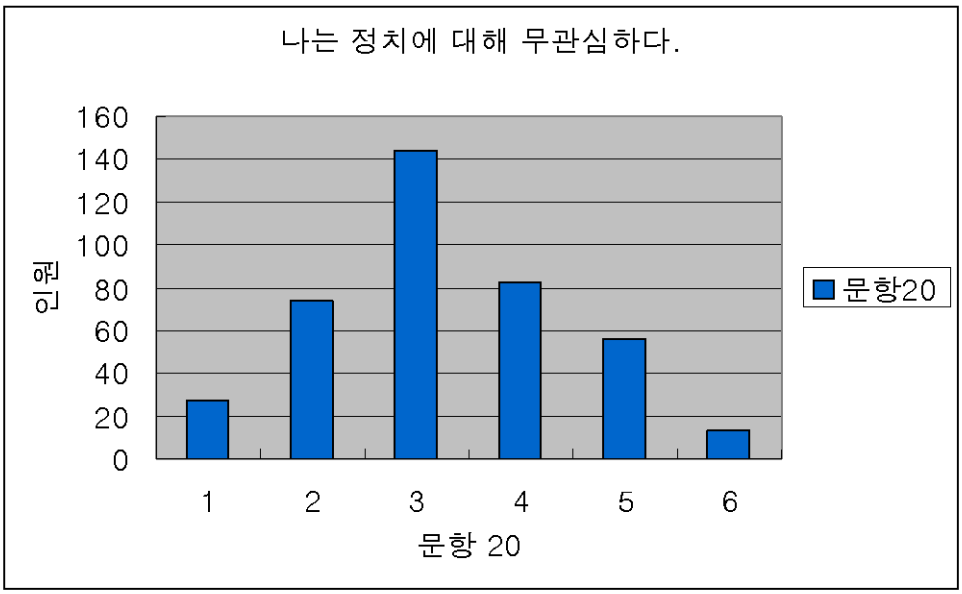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23	5.8
② 대체로 그렇다.	78	19.7
③ 보통이다.	137	34.6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83	21.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4	11.1
⑥ 모르겠다.	31	7.8
계	396	100.0



여수 지역 청소년들의 "지역 현안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 '관심이 있다'는 청소년이 25.5%이고, '관심이 없다'는 청소년이 32.1%로 나타나 비교적 청소년들은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0) 나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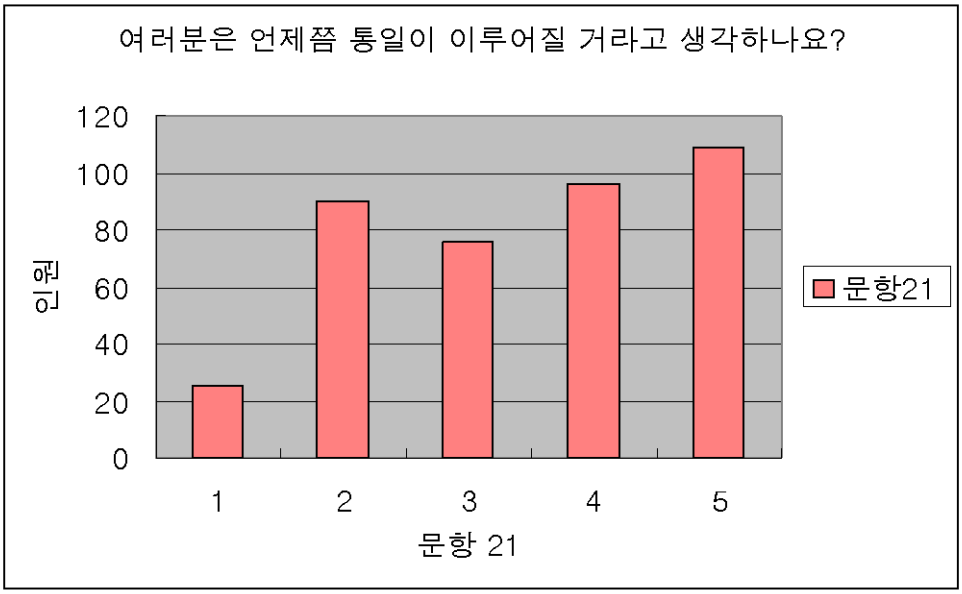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매우 그렇다.	27	6.8
② 대체로 그렇다.	74	18.7
③ 보통이다.	144	36.4
④ 대체로 그렇지 않다.	82	20.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6	14.1
⑥ 모르겠다.	13	3.3
계	396	100.0



여수 지역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도"를 묻는 설문에, '무관심하다'가 25.5%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34.8%로 나타나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의 관심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항 21) 여러분은 언제쯤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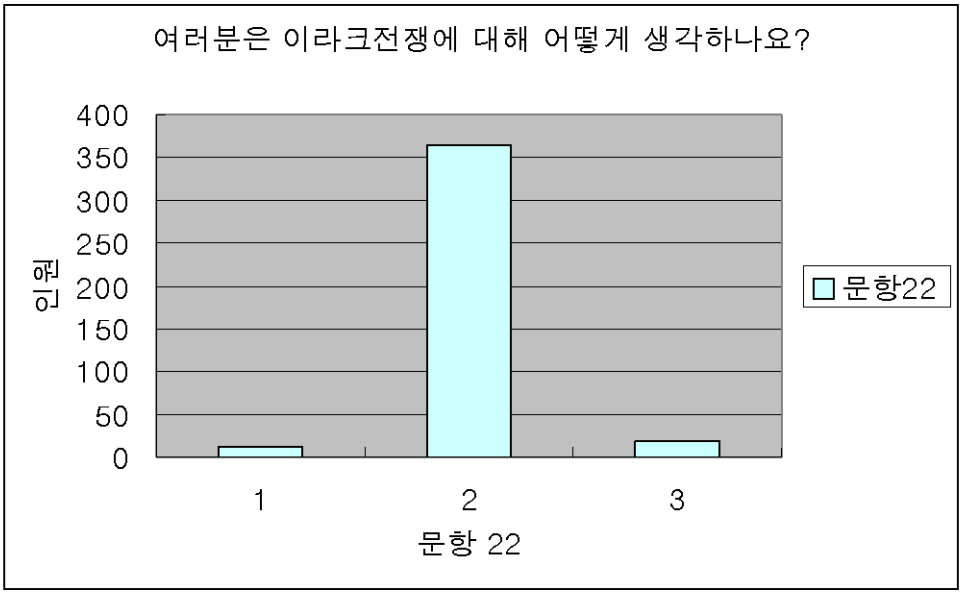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5년 이내	25	6.3
② 10년 이내	90	22.7
③ 20년 이내	76	19.2
④ 20년 이후	96	24.2
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09	27.5
계	396	100.0



"통일의 실현시기"를 묻는 설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후' 24.2%, '10년 이내' 22.7%, '20년 이내' 19.2%, '5년 이내' 6.3%순으로 조사되어, 여수 지역 청소년들은 비교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20년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22) 여러분은 이라크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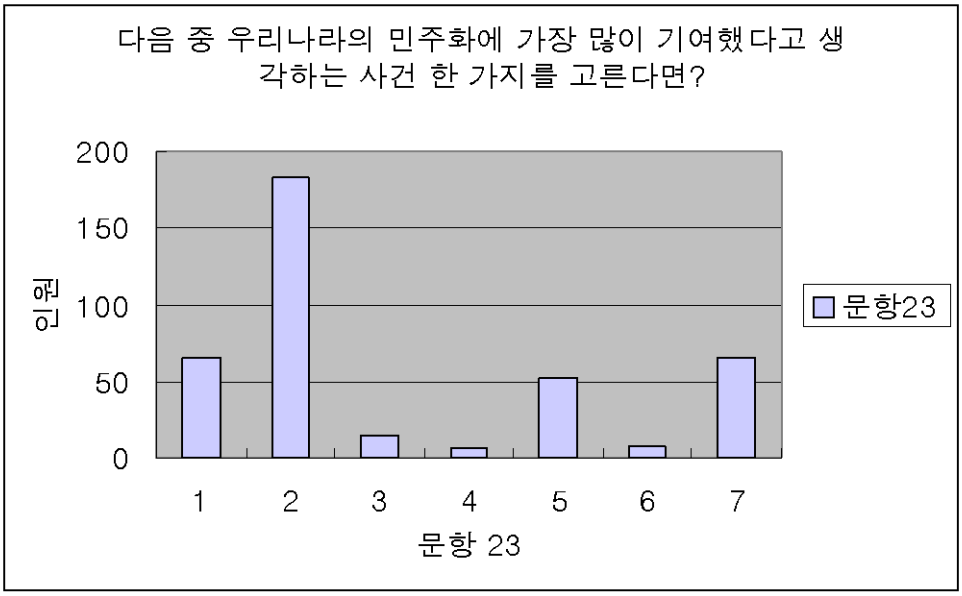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쩔수 없는 전쟁이다.	12	3.0
② 많은 수의 인명을 희생시킨 명분없는 전쟁이다.	365	92.2
③ 잘 모르겠다.	19	4.8
계	396	100.0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 92.2%의 청소년이 '많은 수의 인명을 희생시킨 명분없는 전쟁이다'고 응답하였으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전쟁이다' 는 응답에 3%가 답함으로써 청소년 대다수가 이라크전쟁에 대한 평가를 '명분없는 전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3) 다음 중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건 한 가지를 고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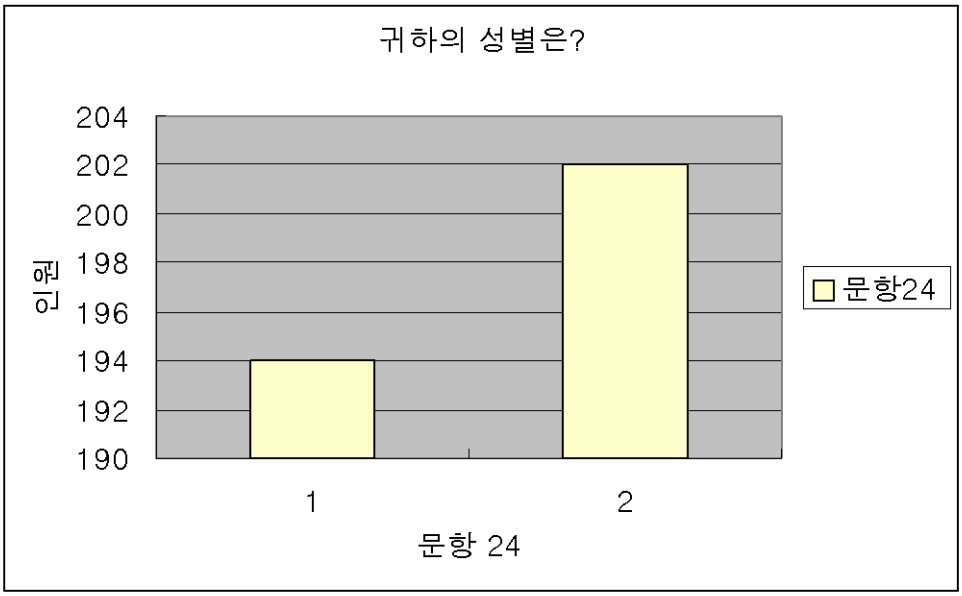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4. 19 혁명	65	16.4
② 5. 18 민중항쟁	183	46.2
③ 6월 항쟁	15	3.8
④ 1993년 문민정부 출범(김영삼정권)	7	1.8
⑤ 1998년 국민정부 출범(김대중정권)	52	13.1
⑥ 2003년 참여정부 출범(노무현정권)	8	2.0
⑦ 잘 모르겠다	66	16.7
계	396	100.0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건"을 묻는 설문에, 46.2%의 청소년이 5.18민중항쟁에 응답하였으며, 4.19혁명 16.4%, 1998년 국민정부 출범 13.1%, 6월 항쟁 3.8%, 2003년 참여정부 출범 2%, 1993년 문민정부 출범 1.8% 순으로 응답해, 여수지역 청소년들은 5.18민중항쟁을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건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항 24) 귀하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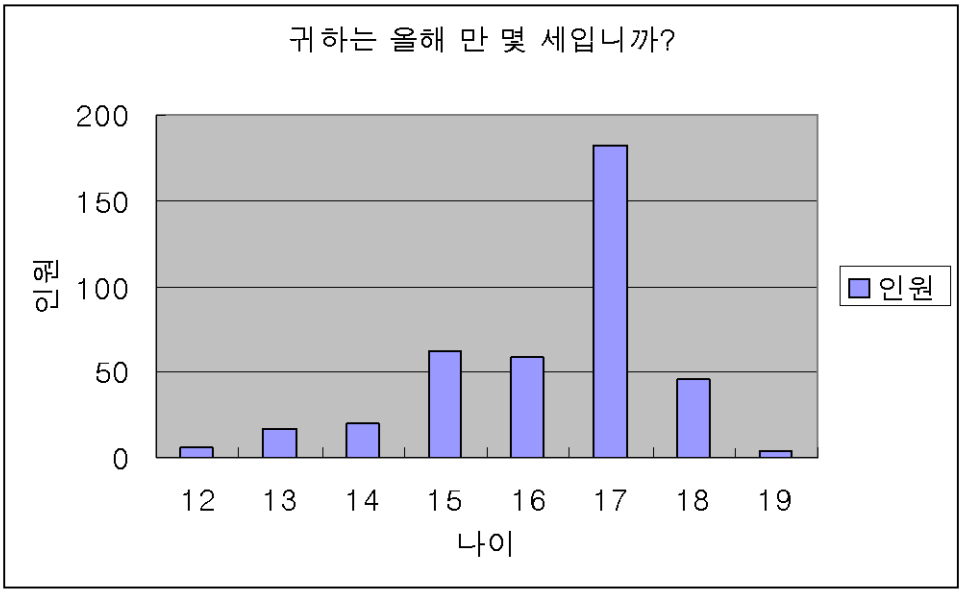
항목	빈도	퍼센트(%)
① 남자	194	49.0
② 여자	202	51.0
계	396	100.0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396명의 여수지역 청소년들이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이 194명으로 총응답자의 49%이고, 여학생이 202명으로 총응답자의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5) 귀하는 올해 만 몇 세입니까?

항목 (나이)	빈도	퍼센트(%)
① 12	6	1.5
② 13	16	4.0
③ 14	20	5.1
④ 15	62	15.7
⑤ 16	59	14.9
⑥ 17	183	46.2
⑦ 18	46	11.6
⑧ 19	4	1.0
계	396	100.0



설문조사 응답자를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17세가 183명으로 총응답자의 46.2%로 가장 많았으며, 만15세가 62명으로 15.7%, 만16세가 59명으로 14.9%, 만18세가 46명으로 11.6%, 만14세가 20명으로 5.1%, 만13세가 16명으로 4%, 만12세가 6명으로 1.5%, 만19세가 4명으로 1% 순으로

나타난 중, 고 청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